■ 한눈에 보는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연면적 : 19만7869㎡
높이 : 289m
규모 : 지상63층·지하4층
공사기간 : 2010.5~2014.6

일반업무시설(63F)

KRX 한국거래소(50~62F)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금융기관
입주 인원 : 340명

부산국제금융연수원(52F)
9월26일 입주

한국자산관리공사(40~47F)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기업구조 조정 업무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입주 인원 : 620명

한국 예탁결재원(36~39F)
금융 및 증권시장의 기간구조로서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결제기관
입주 인원 : 220명

한국남부발전(30~35F)
하동 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국내 총 발전용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회사
입주 인원 : 288명
10월 22일 입주완료

한국주택금융공사(23~27F)
장기모기지,주택금융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금융기관
입주 인원 : 283명

해양금융종합센터(20~22F)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해양 및 선박금융 관련부서가모인 종합센터
입주 인원 : 77명

대한주택보증(15~19F)
성공적인 주택 사업과 안전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입주 인원 : 286명

신용보증기금부산본부(14F)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입주 인원 : 100명

일반업무시설(9층 일부, 10~13F)

농협부산영업본부(2F, 8~9F)
입주 인원 : 150명

※ 아웃리거(48~49F, 28~29F)
초고층 건물의 횡·하중을 부담하는 공간
(화재시 피난안전층 역할)

BIFC몰(1만6513㎡)
푸드·상가 등 BIFC 및 지상3층·지하1층 개별 입주기관들 지원하는 상업시설

기술보증기금
(2만6034㎡)
지상 15층·지하 2층
보관·기술과 2개동
(2011.5 입주 완료)
기술능력평가를 통해 기업에 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
입주 인원 : 280명

한국은행부산본부(9988㎡)
지상 4층·지하1층(2013.7 입주 완료)
화폐 발행과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부산본부
입주 인원 : 70명

부산은행본점(5만9826㎡)
지상 23층·지하3층
(2014.10.13 입주 완료)
입주 인원 : 800명

부산은행 '문현동 시대' 개막

본점 입주 완료… 임직원 800여 명 근무

BS금융그룹(부산은행)이 범일동 시대를 끝내고 본격적인 문현동 시대를 열었다. 본점을 문현금융단지 내 신축 사옥(사진)으로 옮겨 지난 13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본부 내 32개 부서, 800여 명의 임직원이 남구로 옮겨온 것이다. 옛 범일동 본점에는 일부 IT부서와 은행의 전산 서버만 남겨 놨다. 신축 본점은 대지 1만959㎡, 연면적 5만 9천826㎡, 높이 122m, 지하 3층, 지상 23층 규모다. 이로써 속속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더불어 문현금융단지의 양 날개가 모두 펼쳐진 셈이다.

2011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신축 본점은 지상 1층에 기업홍보관 금융역사관 BS아트갤러리 글라스홀 등이 들어서 문화·예술 전시와 정보제공의 장소로 활용된다. BS아트갤러리는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중견작가 27인전을 연다.또 2층 대강당은 국내외 행사와 연수시설이 없는 지역기업 등에 대관할 계획이다.

BS금융은 최근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해 부산은행과 2은행 체제를 갖췄고 BS캐피탈과 BS투자증권 등 모두 7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전체 자산 규모는 91조원이며, 임직원수 8000여명으로 국내 5위 금융그룹으로 도약했다.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BS금융그룹이 앞장서고, 경남은행이 BS금융그룹의 한 가족이 된 만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동남경제권 지역금융을 선도하는 쌍두마차가 돼 상생경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복지희망나눔이 사회적협동조합과
㈜KB유니온개발이 함께하는

BIFC 건물관리 인력 채용 공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관리를 위해 함께 일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서류접수** : 2014. 10. 30.(목) 14 : 00~17 : 00
※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개별 연락)
○**접수장소** : 남구청 1층 대강당
(취업박람회와 병행 실시)
○**제출서류** : 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주민등록증, 취약계층 증빙서(또는 확인서), 관련 직종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급여 수준	비고
시설(40명 이내)	전기	170~200만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건축		
	소방 방재		
	기계 관제		
환경미화(40명 이내)	주·야간	120~130만원	
주차(10명 이내)	주·야간	130~160만원	
보안(20명 이내)	주·야간	140~180만원	

○**근무장소**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지원자격** : 신체 건강하고 성실히 일하실 분
○**합격자 발표** : 면접 후 개별 통보
○**기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채용을 해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복지희망나눔이
(☎051-998-0294)

제18회 오륙도축제 시민백일장 입상자 명단

초등부

■산문
• 장원 : **오륙도스카이워크** 진효준(대연초등 3-2)
• 차상 : **할아버지 가을 감나무** 조연서(우암초등 2-2)
• 참방 : **제르니모의 오륙도 모험** 신승은(대연초등 3-4)
가족과 가을 여행 신소민(용문초등 2-4)
■운문
• 장원 : **가을은 예술가** 김태경(문현초등 4-1)
• 차상 : **가을바람** 강태이(용소초등 2-4)
가을 김태기(문현초등 2-1)
• 차하 : **가을** 강동연(문현초등 4-4)
둘 다 좋아 오다연(대남초등 1-4)
• 참방 : **가을 단풍** 이현익(문현초등 4-3)
가을 나무 김민지(연포초등 5-3)
가을의 아름다움 김민주(문현초등 5-4)
가을의 아픔 임송희(문현초등 5-6)
가을은 황동주(문현초등 5-4)
가을 장누리(용호초등 5-1)
가을은 내 친구 고다영(용문초등 2-2)
요술쟁이 바람 마법사 바람 오나은(대남초등 1-4)

중등부

■산문
• 장원 : **나의 전우여** 김유림(용호중 2-2)
• 차상 : **날개를 달아준 유엔공원** 김현정(석포여중 2-5)
힐링의 장소 유엔공원 장채영(대연중 2-7)
• 차하 : **육이오 전쟁의 희생자들** 김나희(해연중 3-9)
국화 한 송이 이은혜(해연중 3-1)
우리들의 자유로운 공원 조현진(대천중 2-8)
■운문
• 장원 : **국화** 진세현(동수영중 3-8)
• 차상 : **그대에게 바칩니다** 박민선(해연중 3-8)
감사합니다 서민영(해연중 3-8)
• 차하 : **말뚝** 김민주(대연중1-4)
당신이란 국화 한송이 유제민(해연중 3-5)
굳세어라 김예지(대연중 1-4)

대학·일반부

■산문
• 장원 : **효녀 삼총사** 박경연(용호동)
• 차상 : **어머니의 마음** 최영희(용호동)
■운문
• 장원 : **빈칸** 김미영(용호동)
• 차상 : **엄마도 예쁜 것 좋아하네** 박지영(우암동)

*지면 사정으로 초등부·중등부 산문의 전문과 타 입상자들의 작품을 싣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운문 장원

초등부

가을은 예술가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
내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
여름 내내 화산 같이 뜨겁던 내 마음을 식혀 주는 가을

알록달록 멋진 풍경
멀리멀리 볼수록 더 멋진 풍경
노란 옷 빨간 옷 나무들에게 색색의 옷 입혀 주는 가을

황금 들판의 벼들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네
일 년 내내 고생한 농부들에게 보답해 주는 가을

가을은 예술가다
이렇게 멋진 풍경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이렇게 풍성한 곡식 다 만들어 내는
진정한 예술가다

김태경(문현초등 4-1)

중등부

국 화

아름다운 순간에
목 메이게 피어남에
너를 고마움이라 부른다

너의 향처럼 짙은
백색으로
그대 태양으로 가는 길
번져 가면 좋으련만

섭리의 시간에
의연히 피어남에
너를 행복이라 부른다

너의 이름처럼 깊은
울림으로
그대 내 곁으로 돌아오는 길
속삭이면 좋으련만

한 번의 순간에
끝없이 피어남에
너를 진실이라 부른다

너의 꽃잎처럼 곧은
날갯짓으로
그대 걸어온 길
만나러 가면 좋으련만

나 너를 닮아
그대 마음에
피어나면 좋으련만

아직 이 땅에 있는
나는 너를
피워낸다
부른다

국화야

진세현(동수영중 3-8)

대학·일반부

빈 칸

어서 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잠시 쉬어 가

바다를 건너다 지쳐
힘겨워하는 배에게
자신의 빈칸을 말없이 내어 준다

빈칸을 채운 배는
힘겹게 지켜온
짐을 내려놓는다.

또 무언가를 채운다
다시 떠난다

잘 가, 그리고 고마워
떠나는 배에게 보내는
부두의 짧은 인사

빈칸은
다시 빈칸이 된다

김미영(용호1동)

산문 장원

대학·일반부

효녀 삼대를 꿈꾸며

우리 엄마는 거의 십 년째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다. 할머니 연세는 아흔 하나. 오 년째 치매 투병 중이신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격성 치매가 아니라는 것. 할머니의 증상은 십 분 간격으로 화장실 물 내리기, 한 시간 간격으로 손 씻고 이 닦기, 했던 말 또 하기, 밤에 옷 차려입고 마실 나가기….

갈수록 귀와 눈은 어두워지고 보행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삶보다 죽음이 먼저 떠오르는데, 엄마는 그 동굴에서 십 년째 생활 중이시다. 그 십 년간 엄마에게 가장 많이 는 것은 주름살과 짜증이다. 같은 얘기 두 번만 하게 되면 짜증이 앞선다. 주름살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라면, 짜증은 엄마 마음의 상처 흔적 같다. 늘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과연 두 분께 어떤 행복을 줄까 생각하게 한다.

엄마는 부잣집 무남독녀로 자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엄마의 과거 회상에는 늘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큰 장에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초등학생 어린 딸은 적잖은 짐이었던 모양이다. 며칠씩 집을 비우셔서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그런 생활을 열 살 이전부터 하셨다고 한다. 어떻게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그냥 그러려니 했다. 과연 옛날에는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그런 유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짐이 된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아이를 외롭게 키우기 싫어서 딸을 셋이나 낳았고, 남편 노릇 못하는 아빠와도 이십 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셨고, 지금도 내 옆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 엄마는 엄마, 아빠에게 재롱둥이 딸이 아닌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노름꾼이셨다 한다. 야반도주도 여러 번 하셨다니 짐작이 가는 상황이다. 할아버지와 언쟁이 있거나, 할아버지의 폭력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는 엄마를 붙잡고 "니 때문에 참고 산다."를 노래 삼아 부르셨다 하니 정말 불우한 유년이었다 할 수 있겠다. 힘들어도 엄마를 놓지 못하신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를 놓지 못하는 엄마. 난 그런 두 분이 계속 오버랩 되며, 대사 한마디 없이 같은 장면 여러 번 나오는 지루한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영화는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끝날 듯하다. 그런데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다. 상처는 치유되기보다는 덧나기가 더 쉬우니까.

나는 과연 엄마의 어떤 딸이 되어 있을까? 지금 엄마처럼 어머니와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양원에 방치하는 딸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요양원, 실버센터 등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다. 효도라 거창하게 포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난 적어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게 해 드리고 싶다. 그게 엄마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듯하다. 엄마가, 그리고 내가 노후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많이 씁쓸하지만 내가 엄마와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박경연(용호동)

초등부

오륙도스카이워크

지난 여름 가족들과 오륙도스카이워크에 갔다가 겪은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으로 허공에 놓인 유리 바닥을 걸으면서 머리카락이 솔잎처럼 쭈뼛 서고 심장을 입구에 두고 걸을까를 고민했다는 초등학생 다운 순진함이 글에서 묻어난다.

진효준(대연초등 3-2)

중등부

나의 전우여

글쓴이가 전장에서 숨져간 전우의 넋을 만나려 60여년 만에 유에기념공원을 찾은 어느 노병으로 변해 독백처럼 풀어쓴 일종의 진혼문(鎭魂文)이다.
중학생 답지 않은 섬세한 표현력과 작품 속 화자의 전이가 눈에 띄는 작품이다.

김유림(용호중 2-2)